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5년 제 44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후배 바지 벗기고 도구 넣어 촬영한 운동부 에이스... '교내 봉사' 처분 논란

뉴스1 신초롱 기자

02

김혜영 의원.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필요”

디지털 광진

03

달라진 학교체육 위상... "운동을 넘어 많은 걸 변화시키는 교육"

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04

공공·직장체육시설서 다쳐도 보상...보험가입 의무화 법안 발의

TJB 류제일 기자

05

"체육시설 개방보다 학생 안전부터 챙겨야"

기호일보 김민지기자

01

후배 바지 벗기고 도구 넣어 촬영한 운동부 에이스…'교내 봉사' 처분 논란

뉴스1 신초롱 기자

2025.11.27 오전 09:13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의 아들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운동부 소속이다.

A 씨는 지난 5월 아들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들은 "앞으로 시합은 꼭 나가야 하는 게 아니면 안 나가고 싶다. 공부에 더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아들은 점점 예민해지고 눈빛이 점점 달라졌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운동부 선배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놨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 1월 지방으로 전지훈련을 떠났을 때 발생했다. 당시 운동부 학생들은 숙소에서 술을 마셨고 운동부 주장의 제안으로 '왕 게임'을 하게 됐다.

남녀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게임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다른 학생들이 "그만하자"라고 얘기했지만 주장은 "안 된다. 계속하자. 제대로 안 하면 벌금 10만 원이다"라며 으박지르며 게임 참여를 강요했다.

'왕'이 된 주장은 피해 학생의 중요 부위에 도구를 집어넣으라고 시켰다. 피해 학생이 머뭇거리자 덩치 큰 다른 운동부 학생에게 눕히라고 지시한 뒤 몸쓸 짓을 했다.

그 후에는 촬영까지 진행했다. 다음 날에는 피해 학생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나중에는 친구들한테까지 보여주며 즐거워했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 4월에 있었다. 주장은 피해 학생에게 "어깨랑 목을 마사지해달라"고 요구하더니 곧 "내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라면서 억지로 피해 학생을 침대에 엮드리게 했다.

01

옆에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에게 영상을 찍으라고 얘기하더니 바지와 속옷을 다 벗기고 중요 부위에 도구를 넣었다.

주장은 이 일에 대해 "장난이었잖아"라고 얘기하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학폭위가 열렸다. 학폭위 심의 결과 △심각성 보통 △지속성·고의성 낮음 △반성 정도 매우 높음 △화해 정도 보통 등 총합계 6점으로, 가해 학생에게 교내 봉사 4시간에 그치는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심지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 측이 '학교 폭력'을 주장하자 '맞학폭'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이 건은 만장일치로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에서는 학폭위 처분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 등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가해 학생이 '에이스 선수'여서 학교에서 일부러 덮어주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3학년인 가해 학생은 내년에 모 시청팀에 입단하기로 확정됐고, 사건 이후에 열린 전국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아들이 운동을 그만두지 않고 더 열심히 힘내서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열심히 지지하고 응원하려 한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필요”

디지털 광진

2025/11/24 16:05

사진=디지털광진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의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지적하고, 호봉제 도입 확산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현재 서울 관내 자치구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20년 차 경력의 베테랑 지도자와 1년 차 신규 지도자가 동일한 기본급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반면 서울시체육회 직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고,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구, 도봉구, 송파구 등 3개 구만이 호봉제를 도입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호봉제가 도입된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 간의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곧 일선 현장에서 뛰는 지도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당연한 처사”라고 강조하며, 자치구의 의지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호봉제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호봉제를 도입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자치구 체육회의 호봉제 전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이라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호봉제 전환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나, 문체부는 호봉제보다는 수당(차등적 근속수당)으로 문제를 풀려는 입장이라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지적해주신 인센티브 등을 통한 호봉제 촉진 방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호봉제 도입을 이끌어 낼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02

김혜영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단순한 수당 신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호봉제 도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03

달라진 학교체육 위상…"운동을 넘어 많은 걸 변화시키는 교육"

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2025-11-28 08:30

사진=경기도교육청

학교 체육의 위상이 달라지는 분위기다.

입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홀대받았던 체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청소년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의 해법으로 부각 받으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 일선 현장에선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이 도입한 '오아시스'가 대표적이다.

오아시스는 '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라는 의미를 지닌 오전 학교 체육 활동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정규 교과 시간을 앞두고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자발적으로 체육 활동을 한다.

경기교육청은 2023년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아시스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해 지난해 상반기 352개교, 하반기 750개교를 지원했다.

도내 희망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동아리형, 체력 향상형, 학교(학급)형, 학교 축제형, 건강 증진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통해 체력을 키우고 사회·정서적 역량을 함양한다.

지난해 경기도 내 초중고교 67%인 1천666개교가 오아시스 아침 운동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올해엔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경기교육청은 예상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28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체육은 단지 운동이나 수업을 넘어 학생의 몸, 마음, 학습, 관계, 생활 태도 전반을 변화시키는 교육 플랫폼"이라며 "내년엔 모든 학교가 하루의 시작을 스포츠로 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교육청은 아침 운동 프로그램 지원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평생 습관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학교 스포츠 활동을 데이터 기반으로 기록·관리하는 일명 '스포츠 활동 디비전 시스템'이다.

임 교육감은 "스포츠 활동 디비전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운동 참여 수준, 신체 능력, 종목별 활동 경험을 종합적으로 기록해 수준별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성장 목표를 갖고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지역 사회·경기 종목 단체가 협력해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돕는다.

다양한 종목 단체들은 학교 교육 현장을 찾아가 전문적인 체육 교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저출산에 따른 학교 운동부 감소와 한국 체육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학교 체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에 경계선을 두어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과거 대한배구협회장을 역임했던 임태희 교육감은 엘리트 체육의 환경을 잘 알고 있다.

임 교육감은 "지금까지의 선발·집중 중심 구조로는 저출산 시대의 체육 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소수에게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동을 경험하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교 운동부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 체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체육 활동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체육을 업으로 삼는 유망주를 키워내야 한다는 의미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기지개 체조, 키즈런, 학생선택형 체육 교육 과정, 스포츠클럽 확대, 오아시스와 같은 생활체육 참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운동부가 사라진 학교를 대신해 시군 체육회·지역 스포츠클럽과 연계한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 체계를 강화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운동을 경험한 학생 중 일부 학교 운동부로, 그중 일부가 훨씬 큰 무대인 국가대표로 성장하게 된다"며 "교육과 체육은 학생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하나의 시스템이어야 하며, 이것이 저출산 시대에 국가 스포츠 경쟁력과 학생의 삶을 모두 지켜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직장체육시설서 다쳐도 보상…보험가입 의무화 법안 발의

TJB 류제일 기자

2025-11-26

사진=충남도청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다쳐도 누구나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공공·직장체육시설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현행 법률은 민간 체육시설업자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육시설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 4월 충남도민 A씨의 민원에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어머니가 지인이 친 공에 맞아 다쳤으며, 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 감사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체육시설법상 공공체육시설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도 보험 가입 의무 대상으로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더불어 공공체육시설에서 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구내 치료비 특약을 영조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때 의무화하도록 15개 시·군에 권고했습니다.

지난 4월 조사 결과 도내 공공체육시설 2천38곳 중 495곳 24.3%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구내 치료비 특약이 없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성우제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혜택 범위가 크게 확대돼, 국내 모든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는 부상 때 훨씬 수월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공공체육시설은 2023년 12월 기준 3만7천176곳입니다.

설치 주체별로는 지자체 3만7천134곳, 대한체육회 16곳, 대한장애인체육회 10곳, 국민체육진흥공단 16곳 등입니다.

"체육시설 개방보다 학생 안전부터 챙겨야"

기호일보 김민지기자

2025.11.25 19:21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체육시설 전면 무료 개방 방침에 대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공립학교 체육시설을 무료 개방할 계획이다.

평일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동장과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교육청 홈페이지 ‘학교시설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하면 된다.

공립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면 기존 50%였던 사용료 감면을 전액 감면(냉·난방비 포함)하는 내용의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9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학교 체육시설 전면개방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별도의 협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각급 학교에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공지를 배포했다”며 “학교 현장의 실제 상황과 고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학생 안전 문제를 가장 큰 우려로 제기했다. 개방 시간대가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이나 놀봄 시간과 겹치면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CCTV 설치, 신분 확인 절차, 출입 통제 시스템, 관리 인력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별로 여건이 다름에도 개방 범위와 시간을 일괄 지정하는 것은 현장을 무시한 처사”라며 “개방 여부 결정 권한을 학교장이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9월 1일 기준 인천에는 공·사립 초·중·고 537개 학교 중 운동장은 476곳(90.1%), 실내체육시설은 256곳(50.7%)이 개방되고 있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